

사설

‘불교 청소년 해’ 선포 그 이후...

우리는 청소년을 일컬어 '미래의 척도'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본명 청소년은 그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기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들이 건전한 이성과 감성의 소유자로 성장할 때 밝고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작업들이 연말 안에 골격을 갖추게 되리라 전망한다. 더구나 교육개혁과 함께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변화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불교계의 대응을 요구하는 만큼 시일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이하 포교원)에서는 불기 2540년 내년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차제에 청소년 포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적합한 이론 정립과 자료를 개발하여 민족문화의 창달과 인류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할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다.

개혁신단 이후 포교원에서 벌이고 있는 활발한 움직임에 거듭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일과성 행사나 자아전 시적 발표가 아닌 질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 포교를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하기 위해 전국 조직의 가장 한국화랑단연맹을 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규모에 걸맞는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종단의 사활을 걸고 총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종단 차원에서 자금을 영출하고 본말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화랑단의 회계장에는 덕담과 신심을 갖추고 청소년 포교를 통해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자하는 경제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포교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조계종이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포교·역경·교육을 강조했지만 청소년 포교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종단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부서나 기관도 없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전무했다. 이런 점은 불교를 신앙하는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젊음수록 신도가 적다는 통계조사에서도 역력히 증명되고 있다.

또한 포교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청소년 포교에 힘쓰는 지도자들을 관리하고 행정적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개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순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앞서야 한다.

포교원은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과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즉 종단의 청소년 문제 전문가, 전국교법사단,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가장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어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복안이다.

불교계는 모든 면에서 인제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가능한 사람을 포용해야 하며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스님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승속이 손을 잡고 일불제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포교는 한국 불교 최대의 불사이다. 이 불사가 안되면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꺼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불사에 동참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너 나 없이 기여 동참하자.

또한 전국적인 청소년 포교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한국화랑단연맹'을 결성하여 전국 각 중·고등학교와 불교학생회와 전국 사암의 불교학생회를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열린 마당

고속철도 경주 통과

나의 의견-진홍섭 前이화여대 교수



나는 이미 '경주는 중환자'라는 논지의 논문을 통해 경주 개발의 부담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 경주는 중환자다. 그간의 개발만으로도 승용이 끝날 지경인 경주에 또 다시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경마장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의 정신문화가 숨쉬고 있는 경주를 완전히 죽이는 이야기가 아닌가.

경주를 우회하든, 지하로 통과하든, 관통하든 경주 지역에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민자당에서 마련한 중재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문화재 때문'이란 이유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그 문화재의 터전에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타지역에 비해 개발이 저조하다는 경주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정부가 진작부터 보상했어야 한다. 문명의 이기를 들여놓고 관광이나 레저시설을 확충하는 개발만이 개발은 아니다.

우회도 관통도 古都 훼손은 마찬가지 '관광·레저시설 아닌 지역발전 대책을'

회생시키기 운동'이 펼쳐져야 할 마당에서 우리는 또 다시 경주고속철도 관통문제도 정부의 유관부처가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다.

가장 경주다운 경주 만들기가 무엇인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그 고심의 가장 급한 불인 고속철도 문제도 경주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상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찬성·반대·절충' 줄다리기 3년

'천년 고도(古都) 경주를 첨단문명의 고속철도가 달려야만 하는가'

3년여동안 맞서 온 고속철도 경주 통과 문제가 최근 문제부의 '우회론' 제시로 다시 달아 오르고 있다. 문제부는 지난달 31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10월 21일 허용한 경부고속철도 경주시 통과 구간내 유적발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제 92년 6월부터 논란이 되어 온 고속철도 경주 통과 문제는 고개에서도 여론이 비등 등국대 경주캠페인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 했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하로 경주를 통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학계 '반대' 건교부·지역민 '강행' 문제부 '우회론' 민자당 '절충안'

문체부의 이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각 언론매체들은 문제부의 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선 수정 등으로 공사차질이 빚어질 경우 차량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GEC 알스톰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

본선이 경주를 통과하지 않고 대구~경주간 철도를 복선화하여 전철화한다는 것. 즉 대구~부산간 직선의 복선화안을 내용은 민자당은 대구~경주간 전철의 신설과 경주관광사업비에 우회노선건설비용을 쓴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18일에는 한국고고학회, 한국미술학회 등 국내 16개 학회가 경주 통과 반대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와 경마장 외곽지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던 이들 학회의 세미나는 경주지역 개발을 지지하는 일부 지역민들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시론 보름달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

사람살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변 환경에 의하여 그 삶의 방식이 결정되었고 같은 사람들끼리 부족을 형성하게 되어 그것을 일러 민족이라 불러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이란 한 뼘을 아래에는 같은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이같은 문화는 민족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날 수 없다. 교육위원 자리를 두고 수많은 뇌물들이 오갔다는 소식 역시 우리네의 서글픈 자화상으로 보름달을 무색케 하고 있으니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는 축제를위기에 빠뜨리는 '친물' 일뿐이다.

이렇듯 삶의 방식이나 생각을 유지할 때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주는 자연은 크게는 하늘과 땅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작게는 한 마을이라는 공동체까지 다양하다. 하늘의 해와 달이 가려지고 드러나는 변화에 의하여 땅의 변화가 일게 되니 해의 있고 없음이 밤낮의 어둠과 밝음을 나타내고 해 비침의 길고 짧음이 땅의 계절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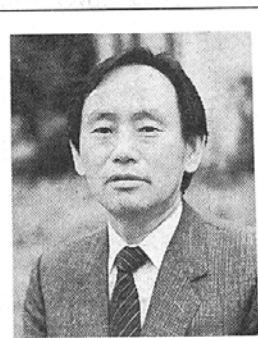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정법(正法)은 불멸하고 사법(邪法)은 편하다는 논리가 온 나라에 만연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법의 종족자가 아닐 수 없다. 뇌물이 끼여야 일이 잘 되고 청렴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그르친다는 착각은 어떤 약으로 치유되는 병인지 한참만 나를 뿐이다.

사람의 삶은 이 하루의 밤낮과 한 해의 네 계절에 따라 여러 형태나 의미를 부여해 왔다. 한 해의 바램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의미의 부여나 그에 따른 풍습의 여러 양식을 일러 세시풍속이라 하여 햇수 바램의 길이만큼이나 전승되어 온 것이 민속명절이라 불려 왔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태국의 청백리 잠룡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법을 지킨 때 때문이다. 인간적 도로로 일을 하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는데서 우리는 '정법은 아름답다'는 지당한 이치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루의 단위, 네 계절의 분기점, 한 해 일년의 변화는 아무래도 태양인 햇살의 길이나 변화에 의해 정해질 수 밖에 없으나 30일을 단위로 하는 1개월의 구분은 달빛의 규율과 어둠으로 나누어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 달을 보름으로 나누어 달의 밝음으로 척도를 삼음이 역시 운치 있는 일이다. 한 해의 단위원 살날은 태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함이 어딘가 모르게 명절답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보름달 아래 은몽 부끄러운 사람들의 나라를 다녀간 이국의 지도자에게서 우리는 '정법은 아름답다'는 지당한 이치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올 추석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아픔이 있다. 그것은 폭우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잃어버린 이농들이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구가해야 할 날에 흉당물이 휩쓸고 간 허망한 들판을 바라보아야 할 그들의 망연자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짐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의 사고도 재해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총체적 부실과 총체적 부패라는 부끄러운 이름들을 저 보름달의 밝은 빛에 녹여 버리고 천년전 신라인이 꿈꿨던 불국토의 밝은 세상 구구기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또 어김없이 중추절이 찾아왔다. 윤광월의 추석이라 예년보다 20여일이나 빨리 찾아 든 명절이지만 벌써 아침 저녁 바람에는 가을의 냄새가 짙다. 이 역시 달의 뜨고 짙은 세월의 잣대를 맞췄던 동양인의 지혜가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까.

뇌물주어야 일 잘 되나

이렇듯 추석은 찾아왔고 한가위 보름달은 창천에 두둥실 떠 올랐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둥근 달을 보며 우리는 부끄러웠다. 삼중백화점 붕괴 사고로 졸지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저 둥근달은 얼마나 비통한 현실의 거울이겠는가. 총체적 부실의 시대에 떠 오르는 저 달은 우리들의 오늘을 부끄럽게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 보다는 큰 희망이 있다. 둥근달이 떠 오르는 추석이 있고 부모님의 포근한 품을 찾아가는 귀성행렬의 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남겨진 아름다운 삶의 양식들을 내일의 자랑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더러운 것은 씻어내면 된다. 문제는 두번다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것일 뿐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그 뿐인가. 온 국민이 들뜬 마음으로 표를 던져 뽑은 지역행정의 대표자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부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듣기조차 얼굴 뜨거워 지는 보도가 아

아직 우리에게 보다는 큰 희망이 있다. 둥근달이 떠 오르는 추석이 있고 부모님의 포근한 품을 찾아가는 귀성행렬의 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남겨진 아름다운 삶의 양식들을 내일의 자랑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더러운 것은 씻어내면 된다. 문제는 두번다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것일 뿐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그 뿐인가. 온 국민이 들뜬 마음으로 표를 던져 뽑은 지역행정의 대표자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부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듣기조차 얼굴 뜨거워 지는 보도가 아

현대만평



생각만 해도...

현해탄을 건너간 불상과 경전이 남긴 - 일본속의 한국불교

비디오 출시

무지의 땅 일본에 불법을 전하고 비조사, 사천왕사, 범룡사를 조성하였으며 일본국보1호인 미륵반가사유상을 만든 백제의 도래인은 누구인가? 20만개 이상의 사찰을 가지고 있는 일본불교 1,400년 그 일본속의 한국불교 - 감춰진 비밀은 무엇인가?

제 1부 - 머나먼 아스카

- 현해탄을 건너간 불상과 경전은 어디로?
아스카의 문화를 꽃 피우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 2부 - 도래인의 숨결

- 일본국보1호인 미륵반가사유상의 비밀
범룡사에 안치된 백제 관음상은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제 3부 - 불국의 땅 일본

- 1일 2만명이 참배하는 동대사의 대불전
비로자나 부처의 신비는?
민중불교 선구자이며 민중 교화 사업에 앞장 선 행기스님은 누구인가?



1인당 평균소득 3만불, 1인당 평균 2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 그들은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던 행기스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열도 곳곳에 살아숨쉬는 한국불교의 찬연한 흔적...

btn 불교TV 32
판매처: 불교영상사업단
구입문의: TEL. (02)715-0032
소비자가: 55,000원(부가세 포함)
5대 광역시, 각도별 1개지사 모집중